

순창군, 군민 현장 소통 강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 만든다

군정설명회 시작... 공로패 수여·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기념 행사 병행

순창군이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일 쌍치면을 시작으로 읍·면 군정설명회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군정설명회는 새해를 맞아 군정 전반의 추진 방향과 핵심 정책을 설명하고, 읍·면별 주요 현안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체육관 등에서 20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열린다.



순창군이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일 쌍치면을 시작으로 읍·면 군정설명회를 본격 추진한다.

첫 일정으로 열린 쌍치면 설명회에서는 10년 이상 근무하고 이임한 이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그동안 행정과 주민을 있는 기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날 26일부터 지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해 순창사랑카드 전달과 카드캐션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정책 시행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어 2025년 군정설명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 상황을 공유하고, 올해 군정의 비전과 분야별 주요 정책, 중점 추진 사업을 설명했다.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생활 불편 사항부터 지역 발전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정설명회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중한 자리"라며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군정에 충실히 반영해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밤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정설명회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중한 자리"라며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군정에 충실히 반영해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금 남원은 춘향제 준비 중”

시, 성공 개최 위해 적극 홍보

남원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96회 춘향제' 홍보에 적극 나서는 등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남원역, 시외버스 터미널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활동을 전개, 이날 홍보 요원들은 축제의 전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통 의상인 '패자'를 착용하고, 축제 일정 및 프로그램이 담긴 홍보물과 기념품을 배부하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속 작업도 속도를 내며, 제96회 춘향 선발대회 수상자들이 참여한 사진 홍보 영상과 SNS 콘텐츠를 제작 중이며, 현재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소통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오는 27일에는 30여 명 규모의 SNS 시민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다. 이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전방위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제96회 춘향제는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라는 주제로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광한루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붕어섬 생태공원 운영 재개

임실군이 동절기 휴장을 마친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새 단장하고 관광객 맞이에 본격 나선다. 군은 지난 1월부터 붕어섬 다목적광장 기반 조성과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휴장에 들어갔던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의 정비를 모두 완료하고, 28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재개장을 앞두고 군은 방문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출렁다리와 생태공원 내 주요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완료했으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행정력을 집중했다. 운영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로

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인 11월과 12월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을 위해 휴장한다.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에 휴장한다.

입장료는 성인 4,000원, 20인이상 단체 및 65세이상 노인 3,000원, 초·중·고등학생 2,000원이며, 임실군민은 1,000원이다. 미취학 아동과 군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아영면 울동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본격 추진

남원시가 추진 중인 아영면 울동마을을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각종 행정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남원시는 최근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해 사업의 안전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이를 토대로 마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축사 등 유해 시설을 철거하고, 부지에는 주민 편의의 시설과 녹지 공간을 조성해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노후·유해 시설 정비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기능과 경관을 재 정비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시는 울동마을을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귀농 전초기지'로 육성해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정비된 생활 인프라와 쾌적한 자연환경은 귀농 초기 정착 과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울동마을은 기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의 터전을, 신규 입주자에게는 매력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상생형 농촌 재생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완료 등 주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사업의 신뢰성과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며, "오는 12월까지 내실 있는 공사를 통해 울동마을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이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귀촌인이 남원에 뿌리를 내리는 마음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제도' 시행

남원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을 즐기려는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명확한 위생 및 안전 기준을 마련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고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며, 다만 맹견 등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소별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희망하는 업

소는 영업 개시 전 시설 기준과 위생 관리 체계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영업자는 남원시보건소에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된다.

주요 기준 및 준수사항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 표시 부착 △예방접종 여부 확인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 범위 관리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 관리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위생안전팀(063-620-799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노인일자리 연계 '지역문화 기록가' 사업 운영

순창군은 올해부터 순창시니어클럽과 협력해 한국노인력개발원이 추진하는 '지역문화 기록가' 사업을 지원·운영한다.

'지역문화 기록가'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시니어들이 직접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장소, 생활상, 인물 등 지역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순창의 지역문화 기록가들은 각 마을과 단체, 개인을 직접 찾아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의 가치와 이야기를 발굴해 순창의 과거와 현재를 폭넓게 기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간 진행되며, 지역문화 기록가로 선발된 4명의 시니어가 참여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찾아가는 산불예방교육 실시

임실군은 최근, 불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자율 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 단위 산불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작년 산불발생지였던 삼계면 삼계마을과 인근 오수면 서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민 스스로의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교육 주요내용은 △산불발생 원인 및 최근 산불사례 △산·발우령 및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 안내 △산불발생 신고 요령 △초기 대응 행동요령 △산불 관련 처벌 규정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작년 3월 6.5ha의 산불피해가 있었던 삼계마을은, 군과 소방서를 주축으로 산불발생지 인근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했음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산불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초동대응하여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초 진화체계를 구축해야함을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휴양시설 안전관리 집중 추진

남원소방서는 불철 해빙기를 맞아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펜션, 캠핑장 등 휴양시설의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휴양시설 안전관리'를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소방서는 관내 주요 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컨설팅과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관내 대표 휴양시설인 숲속아일랜드와 지리산프로방스를 직접 찾아가 화재 취약 요인을 세밀하게 살피고 체험형 안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올바른 사용법 교육 △응급 상황 발생 대비 심폐소생술 실습 △이동객 대피 능력 강화 방안 지도 등과 소화기 비치 여부 등 안전 기준을 면밀히 점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